



## 통신기기 종합메이커로 浮上한

# 홍창물산

72년 이어폰 잭 부품을 조립 수출하는 단순 조립공장으로 출발한 홍창물산은 80년대말 참여한 이동통신기기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며 종업원 1천명에 1천억 매출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울과 인천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홍창물산은 무인기지국 원격제어장치와 고주파 전력증폭기 등을 생산, 국내 이동통신에 납품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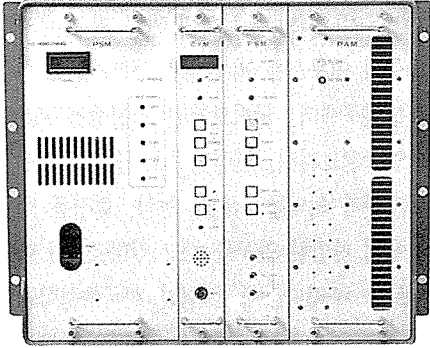
◀ 통신기기의 종합메이커로서 빠른 시일내에 이동통신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손사장

1972년 이어폰 잭 부품조립공장으로 출발한 홍창물산은 수차례 전문품목을 바뀌오면서 76년 소형계측기분야로 업종을 변경하고, 80년대 말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이동통신기기산업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각종 정밀계측기를 비롯 이동통신 장비, 위성송수신기, 자동차용 계측기를 생산보급하는 홍창물산은 1992년 중국 청도에 현지공장을 세우면서 더욱 가시화된 해외사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실히 구축해 놓았다. 21C를 대비하여 더욱 바빠질 홍창물산의 오늘과 내일을 조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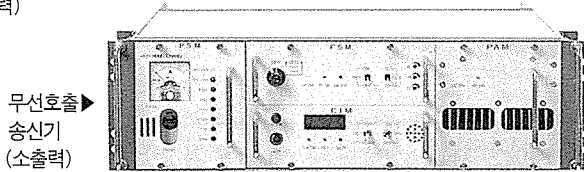
### 72년 이어폰 잭 조립으로 출발

계측기 전문업체인 홍창물산(대표 孫正守)을 찾은 첫 느낌은 무척 깨끗하다는 것이다. 가지런히 놓여진 책상과 벽면 붙박이식 장에 걸려져 있는 사원들의 옷은 보통 일반 가정에 걸려져 있는 옷걸이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72년 이어폰 잭 부품을 조립,수출하는 단순 조립공장으로 출발한 홍창물산은 소비용 제조업체가 아닌 산업용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홍창물산은 이미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탄탄한 상장기업이다. 조그만 부품 조립공장으로 시작해서 회사 불륨을 키워 갈 무렵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은 홍창물산은 여기에 노련한 숙련공을 경쟁사에 뺏겨야하는 이중고를 치르던 77년에 과감히 업종을 전환하게 되었다고 손사장은 전한다. 계측기 제조업체로의 변신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홍창물산은 그동안 한때 소형시계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테스터기 종류의 가장 기초적인 계측기를 만들기 시작하여 OEM수출에 만족하지 않은 홍창물산은 일찍이 치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다. 계측기로 회사가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여기에 안주하지 않은 홍창물



▲ 무선호출 송신기(대출력)



무선호출 송신기 (소출력)

산이 최근 새롭게 도전한 분야는 이동통신분야다.

### 고주파 전력증폭기 好評

95년도에는 이동통신 부문에만 5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 무선통신설비의 핵심장비인 RF POWER AMPLIFIER와 무선호출 송신기 그리고 무선시스템관련 장비 등을 개발해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생산제품으로는 무인기지국 원격제어장치와 고주파전력증폭기, 무선호출 간이중계기, DC/DC변환기, 대출력용·소출력용 무선호출 송신기 등이다. 고주파전력증폭기는 92년 삼성과 LG, 현대에 이어 중소기업으로는 홍창이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소출력용 무선호출송신기는 이미 한국, 나래, 서울, 부일이동통신사업자에 납품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홍창물산은 위성방송 수신기와 자동차용 계측기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이동통신기기 생산업체로서 무선호출단말기 생산에도 뛰어들었다. 문자 호출기 '파피루스'를 개발

완료했고 생산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광역호출기를 출시하여 수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광역과 문자기능을 갖춘 호출기를 개발, 내수용으로 충당하고 무선호출기 한 품목만으로도 61억원의 매출을 올릴 야심찬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제품의 성격에 따라 주로 소형 계측기류는 제1공장에서, 이동통

신장비와 위성방송수신기 등의 제품류는 제2공장에서 나누어 생산하고 있는데 각 공장마다에는 기술연구소를 두어 수시로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종업원 1천여명에 1천억원(작년 매출액 7백7억)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홍창물산이 선택하는 제품이 시대감각에 맞아서 호황을 누린 탓도 있지만 정도(正道)경영과 장인정신이 공동으로 빚어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의기투합이 최고의 제품이란 걸작을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각종 제품에서 국내의 KS와 선진국의 VDE, SEMKO 등 품질인증과 안전규격마크를 획득한 가시적인 성과를 차지하더라도 바닥에 먼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장 내·외부의 모습은 흡사 반도체 공장을 방불케 할 정도니 이렇게 잘 정돈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최고의 품질이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들의 장인정신은 국

내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과 독일, 중국에 현지법인을 비롯해서 국내공장과 중국 청도에 해외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홍창은 서울과 인천에 연구소를, 동경에는 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해 상호 긴밀한 협조도 해나가고 있다.

### 匠人정신으로 正道경영

92년부터 고부가가치 이동통신 산업에 진출한 후 작년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홍창은 정밀계측기와 국내 계측기산업의 선두주자로 이제는 사업다각화를 이루고 있지만 계측기를 계속 생산하여 산업의 근간을 계속 이를 방침이라고 한다. 실제로 계측기 제조로는 이동통신 산업에 비해 큰 이윤이 남는 사업은 아니지만 홍창물산이 24년간이나 해왔고 또한 국내에서 계측기분야에서 가히 독보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홍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애정이 가는 사업이라고 손사장은 말한다.

손사장은 홍창물산의 향후 사업전개는 통신기기 종합메이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한다. 이미 PCS분야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주도업체로 선정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TRS, 무선테터통신, 국제전화분야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홍창물산은 5년 이내 이동통신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손사장은 밝힌다. 다소 날카롭고 까다로울 것 같은 손사장은 일에 관한한 정도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지만 홍창의 복지기금으로 사재 3억원을 출자할 정도의 통도 가지고 있다. 21세기 신사업 창출에 더욱 확고한 목표가 서 있는 홍창물산은 외형성장만큼이나 내실경영의 조화를 이룬 홍창이 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한다.

히정실(본지 객원기자)